

새시대 교수법: “M” 세대 학생을 위한 교수법

조 벽 (미시간 공대 교수·Houghton, Michigan)

1. 서문

“조 벽 교수님께,
... 학업에 대한 열의가 있는 학생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학습자질이 부족한 학생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들은 수업에 집중하지도 않거나와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방법을 시도해보았지만 도무지 학생들은 참여하지 않고 관심마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의에 대한 열정을 잃는 것은 당연지사가 아닙니까? 그 와중에 연구해야 하는 압박으로부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연구비를 따온 후에도 쓸데없는 잡무에 시달리게 됩니다. 저는 새 학기가 시작되면 달력을 맨 먼저 보게 됩니다. 제 강의 시간이 공휴일에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학습동기를 가질 수 있게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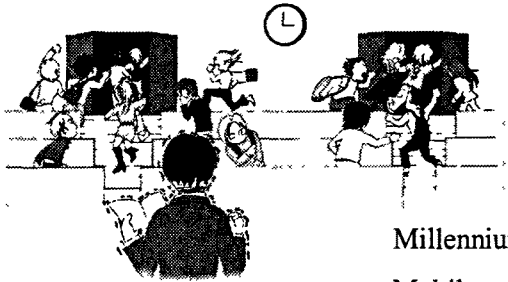
-- 00 대학 김 00 교수

많은 교수님들께서 위에 제기된 문제를 공감하시겠지요. 불행스럽게도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앞으로 기초가 부족한 학생, 학습 동기가 없는 학생, 또는 취업위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주류"를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수님께서 강의하시기가 더 힘들어 질 것입니다.

입시 성적순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때에는 강의실에 비슷한 실력이나 학습자세를 지닌 학생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 교수님께서 강의를 학생의 "평균" 수준에 맞추면 되겠지요. 하지만 학생들이 "열린" 초중고교육을 받고, 특차로 선발되어 대학에 들어오게 되면 수강생들의 실력과 학습자세가 엄청나게 다양해집니다. 공부를 매우 잘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공부와는 아예 담을 쌓고 지내는 학생도 한 반에 함께 있게 됩니다. 실력의 폭이 예전보다 훨씬 더 넓어져 강의를 어느 학생의 수준에 맞추어야 할지 고민스러울 것입니다. 예전같이 "평균" 학생 중심으로 강의를 하면 우수한 학생은 매우 따분해 할 것이며 준비가 덜된 학생은 학습을 아예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해결책은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해야 합니다.

1.1 M세대 학생들의 특성

초중고 교육 붕괴 현상 → 고등 교육 붕괴 현상



M세대 학생들의 특징

Millennium	새 시대
Mobile	이동적, 유동적
Money	소비력
Market	시장원리
Mistrusting	불신
Measuring	측정, 평가

새 학기를 맞아하여 아직은 그래도 약간이나마 설레는 마음으로 강의실을 들어갔습니다. 노랑머리와 귀걸이한 남학생이 여기 저기 눈에 보입니다만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일전에는 요상한 차림을 한 학생을 보면 그들의 머리를 짹 짹 쥐어박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신차려라"고 큰소리로 충고해주고 싶었지만 이젠 으레 그러려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이번 새 학기는 강의실 풍경이 또 달라져 있습니다. 특히 일학년 수업이면 달라진 모습이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학생들의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 치장 등이 작년과 비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태도가 영 맘에 들지 않습니다. 공부에 관심이 없는 모습은 예전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러나 수업에 임하는 태도, 특히 교수님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불순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거슬립니다.

첫 십 분 동안에는 호기심 반 기대감 반으로 학생들이 교수님을 주시하는 것 같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지겨워 온 몸을 비비꼬는 데 그 모습들이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겨움을 일부러 과장하고 과시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무례한 몸 동작을 하기 일쑤입니다. 교수님이라는 존재가 그들의 안중에 아예 없어 보입니다. 완전히 무시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피가 거꾸로 치솟아 혈압이 왕창 올라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드디어 "M 세대" 학생들이 대학에 대거 들어 왔습니다. 초중고 교실 붕괴가 대학 강의실 붕괴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이럴 수가!"

"이런 아~들 데리고 무슨 놈의 수업을 하노?"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이렇게 분노하고 한탄하고 단념해봤자 달라질 것이 하나 없습니다. 아~, 아닙니다. 달라지는 것이 있지요. 교수님의 열의가 식고, 마음이 굳어지고 갈라지고,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절망감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래가 한층 더 캄캄해 보일 것입니다.

교육은 희망을 가지게 해주는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희망을 느끼지 못하는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희망을 느끼게 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교수님께서 안 그런 척하고 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셔도 소용없습니다. 학생들은 절망하시는 교수님의 안색을 단박 알아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학생들이 교수님의 마음 상태를 파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10 초라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강의실 들어오셔서 입 한번 뻥긋 하는 순간 학생들은 다 알아차린다고 하니 적어도 교수님에 관해서는 학생들은 관상쟁이 수준에 도달했다고 봐야하겠습니다.

학생들로부터 느끼게 된 교수님의 절망은 다시 학생들에게 전염됩니다. 순식간에 강의실은 절망의 도가니로 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한 손해는 학생들이 감당해야하고, 더 나가서는 우리 사회가 보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손해보는 사람은 바로 교수님입니다. 교수님의 스트레스가 크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교수님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M 세대" 학생들을 대하는 교수님께서서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교수법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지금은 강의를 그럭저럭 열의로, 또는 풀사나운 모습을 못 본척하면서 꾸려나간다고 하더라도 내년, 내후년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대응방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강의 내용 전달만큼 강의실 관리가 중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우리가 강의 내용 전달에 100% 치중해도 다 전하지 못할 정보와 지식이 무궁무진하게 많은 시대에 도달했는데 오히려 상당한 강의 시간과 교수님의 정신력을 "강의실 관리"에 빼앗기게 되어버렸습니다. (강의실 관리에는 학습을 위한 환경과 분위기 조성, 학생들의 학습 참여 유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 더욱이 "M 세대" 학생들을 맞이하는 교수법을 지니셔야 합니다.

1.2 일단 학생들을 그대로 인정한다.

“M”세대 학생을 위한 교수법 전략

1. 일단 학생들을 그대로 인정한다.

내 수업실 학생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대학 학생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한국 학생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2. 내가 할 일이라고 믿는다.

해결 방안을 내 행동 범위 안에서 찾는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다.

3. 기본 도구를 선정한다.

공부할 준비와 자세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학생들을 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미워지고 이런 꼬락서니가 되어버린 우리 교육 현실을 탓하게 됩니다. 고개가 저절로 흔들려지며 교육부를 한탄하게 되고 막막한 절망감에서 한숨이 나오게 되지요. 그러나 어찌겠습니까. 우리 잘못은 아니지만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떨어졌습니다. 애써 마음을 가다듬고 수업을 진행하더라도 강의실이 계속해서 산만하면 신경이 곤두서지고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은 벌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왜 그런지 이유를 묻지 마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거꾸로 학생들의 이러한 태도를 정확하게 진단하셔야 합니다. 학생들이 왜 그런지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그들을 이해하고 지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실 붕괴의 원인은 복잡하겠지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학생들의 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더욱이 교수님의 탓도 아닌 것입니다. .

수업은 이렇게 탓할 수 없는 두 사람, 즉 학생과 교수님의 만남입니다. 건설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은 존재하는 셈입니다.


오히려 학생과 교수님을 잘못된 교육 문화의 두 피해자라고 본다면 "홀아비 설움 과부가 안다"는 속담이 있듯이 서로 동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교수님과 학생이 "동지"가 된다?? 이런 똥판지같은 소리가 어디 있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화시대에는 교수님을 "co-student"라고 칭합니다.

비행기에 파일럿(pilot)과 조종비행사(co-pilot)가 있듯이 강의실에는 학생(student)과 학생들의 배움을 보조하는 교수님(co-student)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교수님이 교육을 조정하는 파일럿이고 학생은 가만히 앉아 있는 승객이 이젠 아닌 것이지요. 평생교육이 중요한 시대에는 학생이 교육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고 교수님은 학생들이 훨훨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유동적(mobile) 모습이 머리 속에 그려집니다. 희망의 미래로 솟아오르는 모습이 참다운 M(mobile) 세대 학생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학생들이 학습 동기를 느끼지 못하는 원인 9 가지

미국 대학생들의 톱 10 동기 부족 원인



- 1 할 수 없이 가게 된 대학
- 2 마음에 없는 학문
- 3 잘못 된 학습 습관
4. 부족한 기초 실력
5. 외톨이 성격
- 6 적성에 맞지 않은 공부
7. 개인 사정
- 8 성공에 대한 불안감
- 9 결과주의적 졸업 목적
- 10 과정에만 치중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동기부족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아마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있다면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홉 가지 원인을 살펴보면 교수님께서 해결하거나 도울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유능한 교수의 핵심 특성" 중 하나는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한다"입니다.

1.3 해결방안을 교수님의 행동 범위 안에서 찾는다.

탓이론(attribution theory)에 대한 연구를 보면 성공하지 못했거나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유를 주로 외부적 요건에서 찾는다고 합니다. "운이 나빠서..." 또는 "세상이 말조라서..." 등 자신의 노력과는 무관한 것을 탓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어찌해볼 도리 없는 상황이라고 정하면 일단 어깨가 가벼워집니다. 자신이 책임질 필요가 없게 되니까요. 하지만 가벼운 어깨는 그 순간일 뿐입니다. 일주일만 지나면 다리가 휘청거리도록 육중한 무게가 온 몸을 억누를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어쩔 수 없다"라고 무력함을 느낄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성공했거나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유를 주로 내부적 요건에서 찾는다고 합니다. "내가 성공한 이유는 운도 따라줬지만 내가 열심히 했지." 또는 "내가 아직 성공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운도 좋아진다고 하더라."라고 마음속으로 성공과 행복을 확인하고 다짐한다고 합니다.

"M 세대" 학생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덜 느끼는 방법은 생각과 행동의 초점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 이유야 어떠하든 이제 이들이 내 학생들이 아닌가."

"준비가 덜 된 학생들, 학습 동기가 부족한 학생들, 기초지식이 약한 학생들에게 내가 할 일과 해줄 수 있는 일이 뭘까?"

"교육 목표를 수정해야 하나?"

"수업 방식을 달리해 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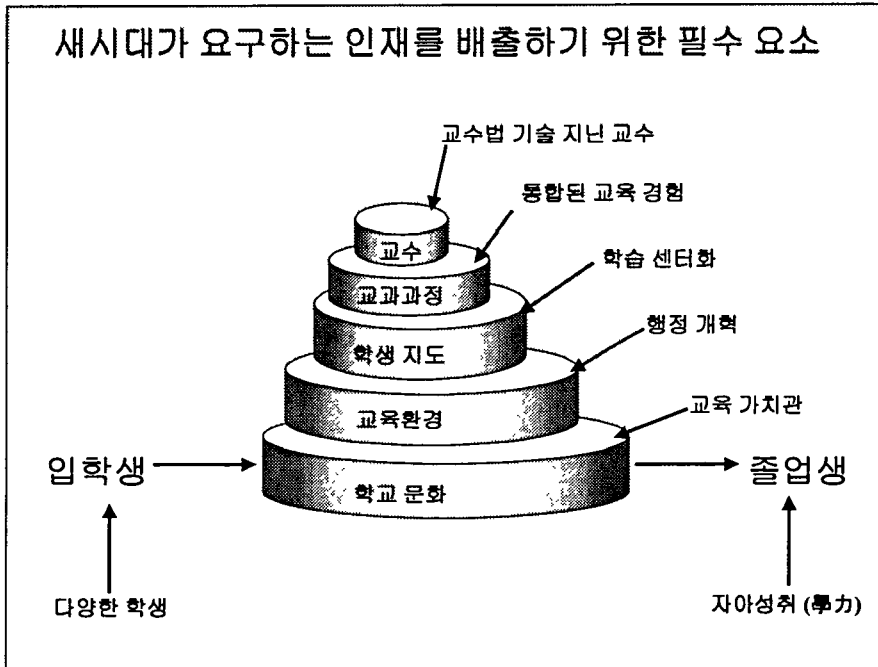
"어떤 숙제가 적절할까?"

"어떤 종류의 시험이 더 효과적일까?"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칠 때에 학생들의 태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겠지요. 물론 "M 세대" 학생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긍정적인 교수님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조금이나마 발전할 것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다." 이 말은 버리십시오. 이 말은 일 초의 위안을 얻기 위해 일 년의 스트레스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 대신 말하십시오..."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한다." 이것이야말로 교수님의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새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필수 요소



물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섯 가지 조건은 교육의 다섯 nested 된 영역에서 비롯하기에 서로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훌륭하고 혁신적인 교과과정이 개발되어도 1~2 년이 지나면 호지부지해져버리기 일쑤입니다. “무엇을 하는가” 만큼 “어떻게 하는가” 역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혁신적인 교과과정의 내용을 고안해 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교수법 기술을 가진 교수진이 필요하고, 대학이 teaching-center 에서 learning-center 로 변해야 하며,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교육 활동을 높게 평가하는 가치관이 대학에 정착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개혁 시도는 “무엇”에만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혁신적인 결과를 구닥다리 방법으로는 성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혁신적인 교과과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혁신이 뒤따라줘야 합니다. 결국 가장 시급한 것은 대학의 행정 개혁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행정은 미래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그려낼 수 있어야 하며 (비전 제시), 구성원들로부터 동의를 얻어낼 수 있어야 하며 (shared governance), 구성원들이 각자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미래에 동참하게끔 (내적 동기) 유도 합니다. 즉, 이론으로 다 잘 아는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 패러다임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행정이라는 뜻입니다. (조벽, "A G.R.E.A.T. Plan for Innovative Engineering Curriculum", Plenary lecture, pp. 1- 15, AEESEAP Midterm Conference, Seoul, 2001.)

1.4 기본 도구를 선정한다

"내가 M 세대 학생들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 뭘 더 할 수 있을까?"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좋은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초임교수님들만 암담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교수님들 대다수가 M 세대 학생들을 처음으로 대하실 테니까요.

교육학 개론 교과서를 뒤적여도 M 세대 학생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습니다. 가끔 ADS(attention deficit syndrome)나 autism(자폐증)이 있는 학생 다루기에 대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병리적 케이스처럼 M 세대 학생들도 몽땅 약물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제가 아이디어를 내려고 할 때 즐겨 쓰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우선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강의실을 연상해 보십시오. 아, 아니요... 산만하고 난잡스런 현재의 강의실은 말고요... 교수님께서 원하는 최상의 강의실 모습을 연상하십시오.

잘 보이지 않으시더가요? 그럼 문제가 심각합니다. 현재의 강의실 모습이 싫지만 그럼 확실히 무엇을 원하시고 추구해야 하는지, 그런 바람직한 강의실 모습이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으시면 교수님께서도 그저 막연한 기대만 지니고 계시는 것입니다. 막연한 목표에서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지요.

다시 눈을 감으십시오. 바람직한 강의실의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지금 학생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생들이 수업에 열중하고 있나요? 학생들의 얼굴에 생기가 있습니까? 학생들이 교수님을 주시하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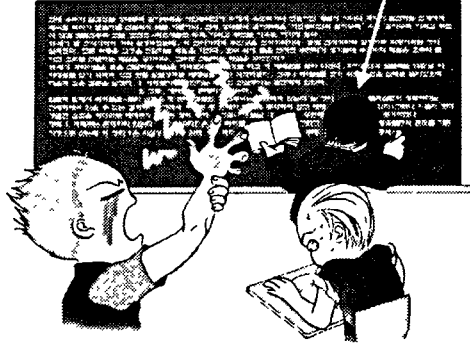
이제 상상의 눈을 강단에 서 계신 교수님 자신으로 향하십시오. 이 때 교수님께서도 무엇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적어도 뻑뻑하게 판서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등을 돌리지 않고 그 대신 학생들에게 시선을 주고 계실 겁니다. 아마도 교수님의 얼굴에는 잔뜩 찌푸린 이마주름 대신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피어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교수님의 목소리에 짜증이 배어있지 않고, 설교하지 않고, 야단치지 않고, 깔보거나 경멸하는 기가 조금도 섞여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교수님의 목소리가 평화롭고, 사실을 말하고, 격려하고, 학생들을 존중해주고 있을 것입니다. 마치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창창한 미래를 부러워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학생들이 받을 정도일 것입니다.

무엇이 싫다 나쁘다 수 백 번 말해봤자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 달성하고 싶은 최후 상태를 상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한 방법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속담..... 무척 적절합니다.

2. 기본 전략

2.1 지식중간도매상에서 지연(知連) 커설턴트로

지식중간도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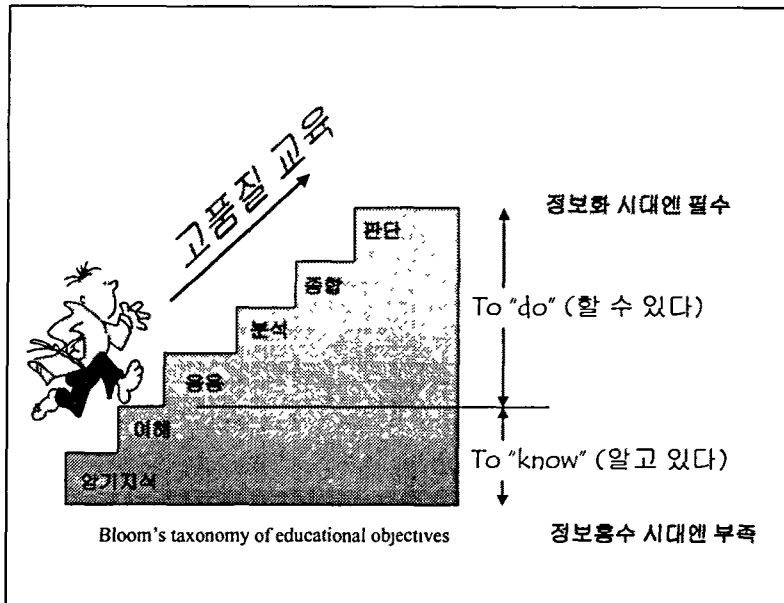


지식 전달 위주 (교수님께서 "보여 주는" 말씀을 학생들이 받아 쓰는) 강의는 구시대에서나 중요합니다. 지식이 흔해 빠진 새시대에는 학생들이 자신이 필요한 지식을 꼭 강의실 안에서 교수님을 통하지 않더라도 아무데서나 쉽게 접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의 시간에는 교수가 학생들에게 지식 "내용"을 보여 주기보다 지식을 분석하고, 분별하고, 창조해내는 능력을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일컫어 <지식 유통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무조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구시대의 발상입니다. 새시대에는 지식을 무게로 달아 팔지 않습니다. 새시대에는 지식의 질을 따지는 때입니다.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양의 내용을 전달하려 하지 말고 학생들이 주어진 내용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는 지식의 암기나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아니고, 응용, 분석, 종합, 평가 등 더 높은 차원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아는가 보다는 무엇을 할 수 있다가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구시대의 경우, 졸업증과 자격증은 지식을 얼마나 소비했는가를 나타내주는 영수증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새시대에는 이력서에 대학을 다니면서 얼마나 다양한 '생산적 경험'을 쌓았는가를 증명해야 합니다. 무엇을 배웠고, 알고 있는가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육 목적 세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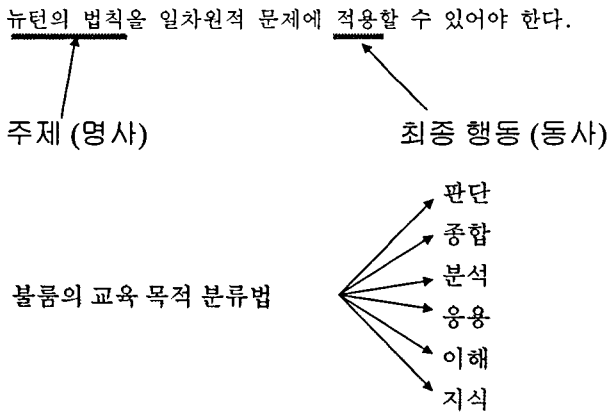
1.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서술한다.
2. 학생들이 학습 목표에 도달했음을 나타내는 방법을 제시한다.
3. 학생들이 어떻게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를 표시한다.

우리 모두 매일 엄청난 양의 정보를 대합니다. 무의식 상태에서 대하는 수만개의 광고 이 외에도 우리는 의식적으로 텔레비전, 신문, 잡지들을 통하여 수 많은 정보와 만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보는 하루 이틀 지나 버리면 별로 기억 나지 않습니다. 재미있게 읽은 신문 기사라도 일주일 정도 지나면 기사를 재미있게 읽었다는 사실은 어렴풋이 기억하더라도 확실히 무슨 내용이었던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정한 무엇을 꼭 알기 위하여,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신문 기사를 읽을 때에는 다른 내용은 다 잊어도 그 내용 만큼은 오래 동안 간직합니다. (사실 인간의 이러한 "선별적 기억력"은 필요한 내용을 쓸 데 없는 내용으로부터

구분시켜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학설이 있습니다. 선별력 없는 어린애들은 별별 시시콜콜한 내용을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강의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강의 효과는 학생들이 목적 의식을 가지고 강의를 들을 때와 그냥 들을 때 사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능한 교수님은 매 수업 시간마다 교육 목적을 학생들에게 확실히 전달하고 나서 강의를 시작 합니다.

교육 목적 세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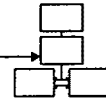


물론 학생들이 스스로 목적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많은 학생들의 경우 강의를 듣는 목적은 배움보다 졸업하기 위함입니다. 필수 과목이라서, 학점 따기 위해서, 쉬운 과목이라서, 딴 과목 마땅히 들을 게 없어서 등 배움과 관계없는 목적은 "교육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강의 시작할 때 "오늘 강의는 뉴턴의 법칙에 대해서입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 또한 교육 주제를 나타낸 것이지 "교육 목적"을 제시한 말은 아닙니다.

"교육 목적"(educational objective)은 블룸(Bloom)이 제시한 용어로서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서술하는 문장을 뜻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습 목적에 도달했음을 나타내는 방법을 제시하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어떻게 평가를 받게 될 것이며, 달성해야 하는 수준을 표시하는 단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학습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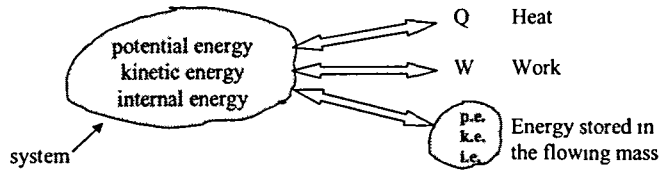
열역학 일법칙의 구성 요소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Delta \left\{ m \left(u + gz + \frac{1}{2} v^2 \right) \right\}_{sys} = Q_{sys} - W_{sys} + \sum m_f \left(h + gz + \frac{1}{2} v^2 \right)$$

Energy stored in a system

Energy transferred in and out of a system



2.2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무엇을 하게끔 할 것인가”로

강의 내용이 기억에 남는 비율

읽기	10 %
듣기	26 %
보기	30 %
보기와 듣기	50 %
보기와 말하기	70 %
말하기와 행동하기	90 %

들으면 잊게 되고, 보면 기억하게 되고, 행동하면 이해하게 된다. 중국 격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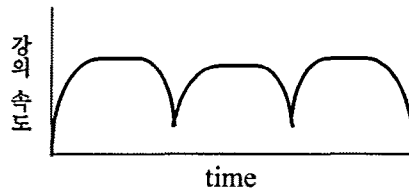
2.3 완성된 모습 보여주기에서 완성되어가는 모습 보여주기

강의 구성

강의에 숨들릴 여유가 있는가?

강의 효과

첫 15 분	75 %
마지막 15 분	20 %



학생들의 집중력을 테스트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한 시간 짜리 강의를 들었을 때 첫 15 분에 발표된 내용은 75% 정도 기억하고 그 후에는 기억도가 차츰 떨어져서 맨 마지막 15 분에 발표된 내용은 20%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시간이 갈수록 학생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교수는 학생들이 강의에 계속해서 주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학습 효과를 높이려면 강의를 "단막극"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중간 중간에 막을 내리고 배경을 바꾸는 "다막극"으로 구상하셔야 합니다. 매 15~20 분 마다 변화를 주면 학생들이 강의 시간 내내 상당히 높은 집중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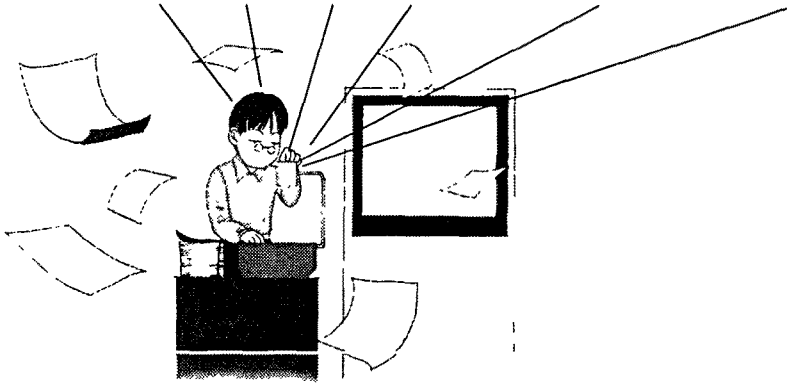
고난도 기술 여기서 "변화"란 말은 꼭 강의 내용을 바꾸라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이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필기 위주에서 듣기 위주나 (OHP 등) 보기 위주로 바뀌어도 효과적인 변화이며, 더 바람직한 것은 학생들을 능동적으로 유도하는 발표하기, 문제 풀어보기, 퀴즈 풀기, 토론하기 등 입니다.

효과적인 강의 준비하기

학생들이 교수님으로부터 원하는 수업은 ...

•~~완성된~~생각

•생각이 완성되어가는 모습



"강의를 잘하려면 컴퓨터나 프로젝터 등 첨단 교육매체(TP, PPT 또는 OHP)를 많이 이용해야 합니까?" 새시대 교수법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 자주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강연하면서 교육매체를 많이 쓰기 때문에 마치 제가 암암리에 첨단 교육매체를 권장하는 것같이 보였던 모양입니다.(잔소리 코너 참조) 물론 제 답은 "글쎄요..."입니다. 상황에 따라 화려하고 산뜻해 보이는 PPT(파워포인트) 프로젝션을 쓰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분필 하나가 더 큰 학습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제 기억에 가장 강하게 남아 계신 선생님은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십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첨단 교육매체가 없었고 오로지 분필과 칠판이 전부였지만 그래도 그 선생님께서 판서하는 방법은 다른 선생님의 방법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글씨 하나 하나에 정성을 다하시는 모습에 학생들은 고개가 저절로 숙여졌고, 마치 자로 그은 듯한 일직선과 거의 완벽하다싶은 원에 학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근데 더욱 감탄할 노릇은 이토록 깨끗한 글씨와 정돈된 그림을 학생들을 쳐다 보면서 판서를 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마치 눈이 뒤통수에도 달린 듯이 말입니다.

"그것이야 그저 쇼맨십이 아닌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학생들을 압도하고 주의력을 장악하여 논리가 학생들의 머리 속에 쑥쑥 들어가게 하였다면 쇼맨십이라고 업신여길 수 없겠습니다. 그 대신 칠판을 무척 효과적으로 쓴 예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교육받은 사람의 정신과 습관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판서를 하셨다고 기억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선생님께서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자신이 생각하는 과정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판서를 하셨던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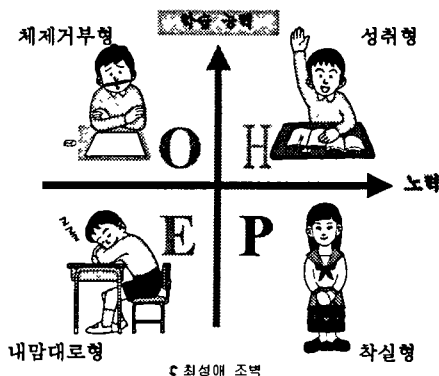
바로 이 점에 PPT 나 OHP 의 약점이 있습니다. PPT 와 OHP 는 무척 많은 내용을, 그리고 말로 잘 표현할 수 없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PPT 나 OHP 에 담긴 내용은 "완성된 생각"입니다.** 학생들은 완성된 생각은 교과서에도 볼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이론과 법칙들이 논리 정연하게 완성된 작품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교실에서는 학생들인 교과서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교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수님께서 주로 PPT 나 OHP 를 사용하시더라도 가끔 내용을 칠판에 적거나 그리면서 생각이 "완성되어 가는" 모습과 과정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잔소리 코너>

강연하고 강의는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연은 일시적인 만남이고 단기적 목표를 짧은 시간 내에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내용 전달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강의는 한 학기 내내 지속되는 만남입니다. 각 강의마다 달성해야 하는 단기적 목표(학습 내용) 외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척 많습니다. 믿음과 신뢰 등 인간적 차원의 요소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업 시간에 교수님과 학생들 사이에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많은 시간 투자와 노력을 해야 효과적인 강의를 이루어 질 것입니다. 이렇게 강연과 강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수법도 다르게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고난도 교육매체 기술까지 동원하면 PPT 에 생각이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원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 투자가 요구될 것입니다.

2.4 모자람 채워주기에서 장점 발견해주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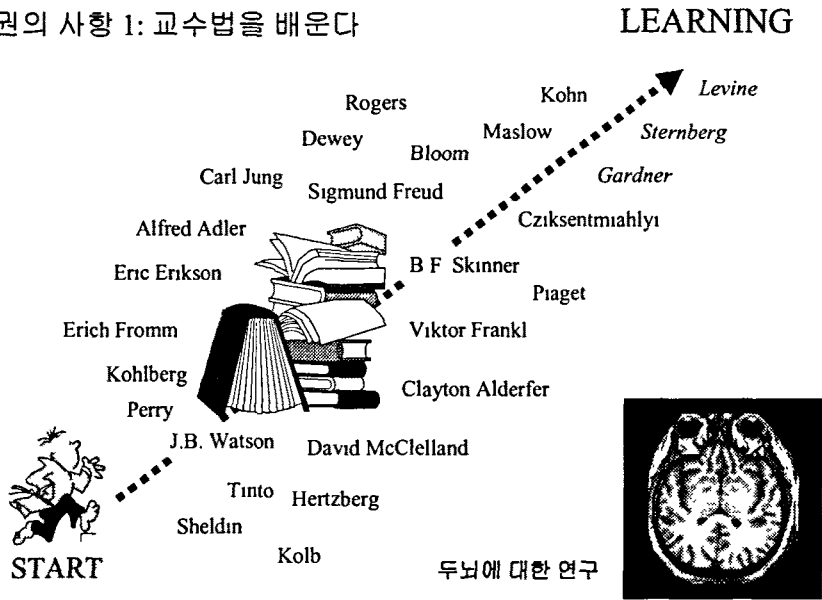


H.O.P.E 자녀 교육법, 최성애 조벽 공저, 해냄 출판사, 2002

4 권의 사항

4.1 교수법을 배운다

권의 사항 1: 교수법을 배운다



교수가 강의를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였더라도 학생들이 강의 내용에 주의력을 모으지 않으면 헛된 일입니다. 강의 전날 밤새워 준비한 강의라면 더욱 더 열이 뻗치겠지요. 그래서 야단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러나 아무리 야단쳐봤자 졸고 싶은 학생은 계속해서 졸게됩니다. 다만 고개를 뺏뺏이 세우고 조는 기술을 터득할 것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졸 수 있는 경지까지 도통한 학생도 있습니다. 잡담하던 학생은 말소리 대신 쪽지를 돌리며 킁킁거릴 것입니다. 이럴 때 어이없어 하거나 실망하거나 더 크게 야단치지 마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학생들의 그러한 태도는 너무나 당연하며, 괜히 욕박지르다가는 역효과만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력에 대한 연구를 보면 "주의력은 보다 더 관심을 끄는 대상에게 저절로 가게된다."하는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 있습니다. "움켜다니는" 주의력은 생리적 행위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깊은 생각에 잠겨 길을 걸다가도 자동차가 빵빵하면 차 쪽으로 신경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수의 강의보다 옆 학생의 잡담이 더 흥미롭다면 주의력은 저절로 옆 학생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강의 시간에 잡담하는 학생들을 야단치기보다는 자신의 강의를 혹시 지루하지 않았나 (왜 학생들의 주의력을 얻지 못했을까) 한번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교수가 반성해야 한다고 해서 주의산만한 학생들에게 전혀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학생들은 물론 배울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배울 자세가 부족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특히 초중고 때 연습 복습을 집에서 미리 다 하고 학교에는 별로 새로운 것을 배운 적이 없던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입시에서 진을 뽑았고 공부라면 진저리를 치는 학생들 아닙니까. 이런 학생들은 야단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주의력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학생들이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술을 터득하면 이런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자님도 교육의 4대 조건의 하나로 "예방"을 꼽았습니다.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학습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2. 수업 방법을 다양하게 사용한다.
3. 교수가 행동을 통하여 주의 집중을 유지한다.

강의실 분위기는 학생들의 태도와 행동을 상당히 좌우합니다. 강의를 마치못해 듣는 학생도 다른 학생들의 모습에서 고조된 기대감, 짜릿한 긴장감, 적극적인 행동력을 엿볼때 계속해서 혼자 시큰둥하게 앉아 있지 못하게 됩니다. 남이 하지 않으면 자기도 하지 않고 남이 하면 우루루 따라하는 군중심리가 발동되기 때문입니다.

강의실의 분위기를 잡는데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강의 첫시간입니다. 첫날 강의시간에 학생들을 둘러 보십시오. 학생들은 서로 결눈질하기 바쁩니다. 이 수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서로 눈치로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첫 몇분 안되어 결정이 나버립니다. "다른 수업(교수)과 별 다를 것이 없다."와 "이 수업(교수)은 뭔가 다르다."로 나뉘 질 것입니다. 주의력은 "뭔가 다르다"라고 인식되는 대상한테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줄거나 신문을 보거나 잡담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의 첫날부터 철저히 예방해야 합니다. 강의실의 학습 분위기를 첫날부터 잡아야 합니다. 한번 흐려진 분위기를 훗날 잡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보는 감각기관으로 통해 들어옵니다. 교수가 말로 설명을 하면 학생들은 청각기관을 사용해야 합니다. 교수가 말로 한시간 내내 강의할 경우 학생들의 청각기관은 overload 되며 이럴땐 "감각기관 자동 보호 시스템"(신경끄기)이 작동하기도 하겠지요. 한마디로, 주의력의 용량에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교수는 학생들이 다양한 감각기관을 사용해서 강의에 지속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수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장 쉬운 기술은 정보의 미디어를 번갈아 주는 것입니다. 말을 집중적으로 하다가 판서를 한다든지 OHP 를 보여준다든지, 그리고 다시 말하기 위주로 되돌아 가는 경우를 뜻합니다. 강의의 내용을 듣기 위주에서 보기 위주로 가끔씩 바꿔 주면 학생들은 여러 감각기관을 돌아가며 사용하기 때문에 쉽게 지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듣고 보기 위주 강의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학생들을 상당히 수동적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학생들이 강의 내용을 노트에 필기야 하겠지만 많은 경우 정보가 학생들의 눈과 귀에서 손가락으로 직통으로 전달되지는 않은가 합니다. 정보가 교수의 노트에서 학생의 누뇌를 통과하지 않고 노트로 곧바로 전달될 밖에 아예 교수님의 강의 노트를 복사해서 학생들에게 나눠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강의는 학생들을 능동적으로 유도합니다. 강의 내용이 학생들의 누뇌를 거치고 그 결과 그들의 지식 구조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는 학생들이 행동을 할 때 잘 나타납니다. 강의 내용이 기억에 남는 비율을 조사한 연구 결과는 왜 학생들이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고 능동적으로 수업에 임해야 하는지 뚜렷히 보여줍니다.

큰 그림 보여주기

1. 다른 교과과목들과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2. 수업 내용의 주요 개념이나 주요 토픽의 "족보"(taxonomy)를 보여준다.
3. 교과서 내용의 연관성을 다차원으로 정돈(concept map)하여 보여준다.

강의 내용에 대한 지도를 conceptual typology, concept map 또는 conceptual framework 라고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그냥 "큰 그림"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강의가 시작되는 첫 날에 그 과목이나 학문 그 자체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 이외에 그 과목이나 학문이 다른 과목이나 학문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설명해주는 것입니다. "큰 그림"은 강의 첫 날뿐만 아니라 하나의 토픽을 끝내고 새로운 토픽으로 넘어갈 때에도 필요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1. 다른 교과과목들과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이 과목이 다른 과목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교과과정의 흐름을 설명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내용을 말로만 설명하기보다 흐름도(flowchart) 같은 그림을 그려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교과과정 흐름도는 강의 첫 시간에 보여주시면 가장 유용합니다.

2. 수업 내용의 주요 개념이나 주요 토픽의 "족보"(taxonomy)를 보여준다.

이 것은 특히 자질구래한 sub-topic 이 많은 과목을 다룰 때 매우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의 토픽이 두 세 갈래로 나뉘어지고, 또 갈래가 새로 갈래를 쳐 나가는 경우, 특히 sub-topic 에 대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할 경우에는 학생들이 topic 과 sub-topic 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sub-topic 이나 토픽으로 넘어갈 때 토픽의 "족보"를 보여주면 학생들이 제대로 그날 강의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3. 교과서 내용의 연관성을 다차원으로 다시 정돈(map)하여 보여준다.

교과서 내용(차례)나 강의 내용은 어쩔 수 없이 순차적으로 정돈되어 있습니다. 순차적(sequential)이란 일차원적이란 말이 됩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이차원이나 삼차원으로 정돈해 보여 줄 수도 있습니다.

학습 동기의 유무는 학생이 지식과 배움의 본질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Student Motivation and Epistemological Beliefs," Michael B. Paulsen and Kenneth A. Feldman, in Motivation from Within: Approaches for Encouraging Faculty and Students to Excel, New Directions for Teaching and Learning, Number 78, Summer 1999, Jossey Bass.)

배움에 대한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하며,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학습동기가 없는 학생은:

-지식이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라든지 죽은 '고체 덩어리'라고 인식합니다.

-벼락공부의 '위력'을 믿으며 공부를 노상 후닥닥합니다.

-학습 능력은 선천적이며 고정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흔히 공부는 그저 시험 잘 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학점에 필요 이상으로 신경 쓰고 따라서 시험을 치를 적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배움을 즐거워하고, 자신감이 많고, 학습 동기가 높은 학생의 경우는 이와 대조적입니다.

-지식을 서로 연결되어 복잡하고 변하는 "유기체"라고 인식합니다.

-공부는 꾸준히 하는 것이며 장기전을 치러야 한다고 믿습니다.

-능력을 후천적인 노력과 배움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학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따라서 시험이나 퀴즈를 담당하게 대한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는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 지식은 결코 간단하거나 완벽하거나 고정되어 있는 않다는 메시지를 준다. 지식이라는 것이 살아 있는 생명체와 같이 변하는 면모를 보여준다.

2. 지식의 연관성을 자주 보여준다. 특히 개념지도를 보여준다 (새시대 교수법 63~4 호).

3.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

4. 정답이 없는 대신 최선의 답이 있는 문제를 내주어 학생들이 최선을 다하는 마인드를 가지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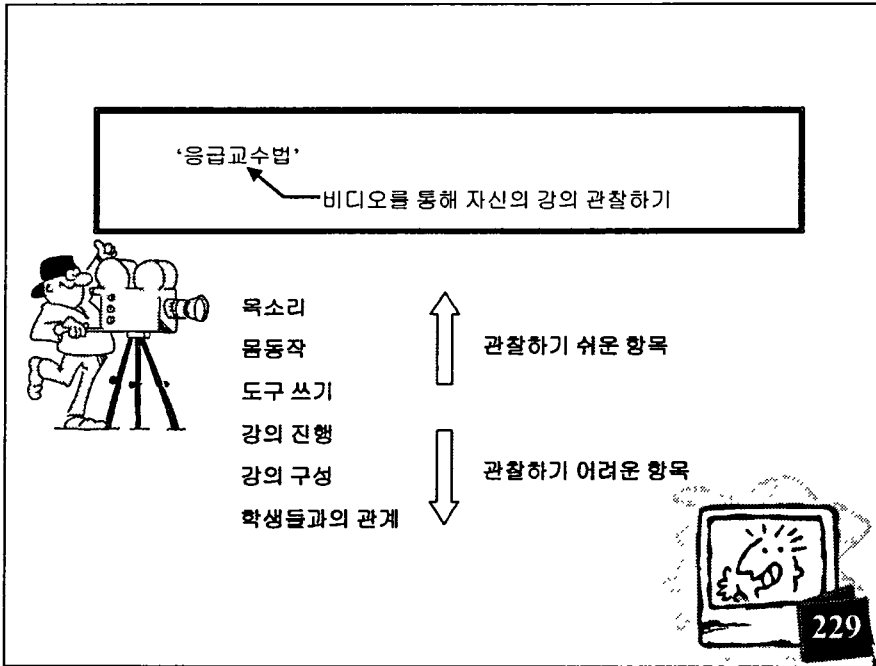
5. 가급적 시험 하루 전날 베퉼공부해서는 잘 볼 수 없는 시험 문제를 낸다.

6. 중간 고사와 학기말 시험 점수에 치우치지 않고 학기 내내 꾸준한 노력을 해야 하는 과제물 점수를 학점에 충분히 반영한다.

7. 차근차근 자신의 실력을 쌓아 가는 학생들도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복식형 성적 계산법"을 쓴다 (새시대 교수법, p. 140).

이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지식과 배움의 본질을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도와주시면 그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디오 피드백 점검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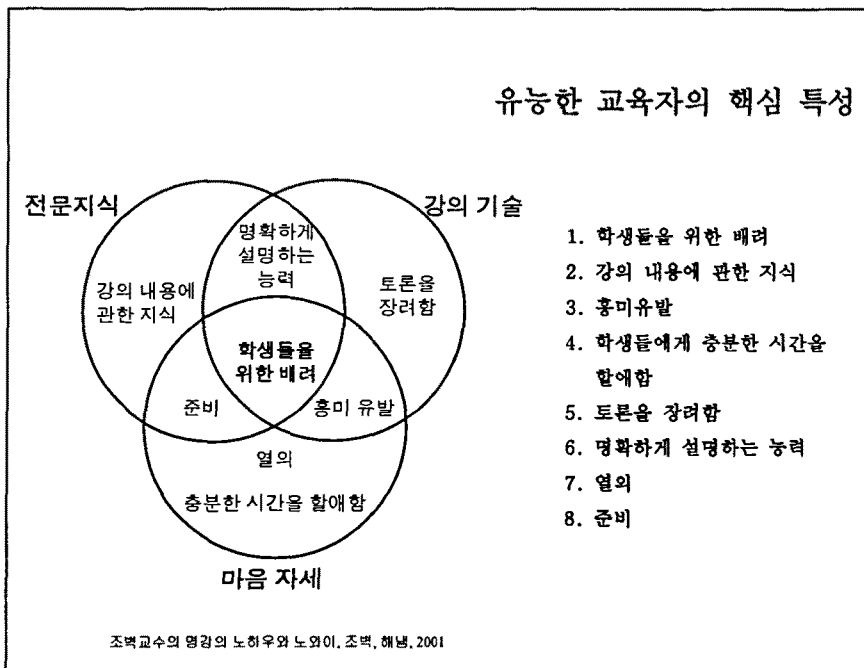


잘 가르치기 위한 방법은 여럿 있으나, 가장 큰 효과를 당장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자신이 하는 강의를 타인이 관찰을 하게 하고 개선해야 할 점들에 대해 세세히 지적 받는 것입니다. 교수법 전문가를 강의실에 초대하여 평가를 받으면 좋겠지만 주변에 그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동료 교수를 초대하자해도 불평한 점이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고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자신의 강의를 비디오로 통해 스스로 관찰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듯이 자신이 강의하는 모습을 한번 보는 것이 교수법에 대한 이론을 백번 듣는 것이 것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요즘은 비디오를 많이 찍으니까 비디오 카메라를 구하기가 어렵지 않을 뿐더러 그 앞에 서는 것이 그리 생소하거나 멋 적게 느껴지질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수들은 비디오를 찍더라도 비디오에 나타난 자신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 보기 위해서는 천하 장사의 뚝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자신의 강의 실력을 높게 평가하는데 반면 비디오에 비춰진 모습은 살벌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기가 학생이었을 적에 싫어 했던 교수님의 모습을 발견 할 수도 있습니다. 충격이 크면 클수록 개선하고 싶은 결심이 더욱 더 강하게 생기기 때문에 비디오 촬영은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4.2 교수 기법에 의존하지 않는다



유능한 교수의 핵심 특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 보면, 여덟가지 요소가 공통적으로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여덟 가지 특성을 위 처럼 한 줄로 나열해 놓고 보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을 위한 배려'가 가장 중요하고, '열의'나 '강의 준비'는 상대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강의 준비를 소홀히 하거나 열의 없는 강의를 한다면, 학생들과 "정"이나 나누면서 자상하고 인심 좋은 교수라는 평을 받으면 "유능한 교수"라는 오해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위의 핵심 특성 여덟 요소는 모두 다 중요합니다. 또한 이 요소들은 순차적으로 연결 되었다기보다는 각 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이고 상호 보완적으로 짜여져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유능한 교수의 8 가지 핵심 특성을 이차원적으로 다시 정돈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성장을 크게 셋으로 나누어 지적 영역(knowing), 정적 영역(feeling), 심리 운동적 영역(doing)으로 분류하듯이, 교수의 역할도 <전문 지식>, <마음 자세>, <강의 기술>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핵심 여덟 요소 가운데 ‘강의 내용에 관한 지식’은 <전문 지식> 영역에 속합니다. 그리고 ‘열의’는 <마음 자세> 영역에 들어 갑니다. 그러나 ‘강의 준비’는 이 두 영역이 겹치는 소영역 안에 들어 갑니다. 아무리 머리 속에 든 지식이 많아도 학생들을 위해 충분히 시간을 할애하고 싶은 마음 자세가 없다면 강의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아무리 훌륭한 마음 가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 지식이 없으면 강의 준비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는 이 두 영역, 곧 <마음 자세>와 <전문 지식> 영역이 충분히 겹쳐야 가능한 것입니다.

‘강의 준비’와 ‘흥미 유발’을 동시에 잘 하려면 교수님 자신이 열의적인 태도(<마음 가짐>)를 가져야 하며, 또한 그 열의가 학생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게 이끌어나가는 <강의 기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과 <강의 (전달) 기술>이 동시에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특성인 ‘학생을 위한 배려는 단순히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 씩씩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능한 교수는 학생들에게 ‘무엇’ (전문 지식)을 ‘어떻게’ (강의 기술) 가르칠 것인가를 아는 동시에 이를 행동으로 옮기고 싶어하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요컨대 ‘학생을 위한 배려’는 나머지 일곱 요소가 모두 골고루 공존할 때 비로서 이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5 네 가지 선택

선택!

시간/여유

해야하는 일과 하고싶은 일

양과 질

교직원

유능하고 행복한 교육자가 될 것인가는 안될 것인가는 지극히 개인적 선택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상황(즉, 스트레스를 잔뜩 안겨주는 현실)에 각자 다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란 캐나다 생리의학자 셀예 (Selye) 박사가 물리학의 개념을 신체 반응에 도입한 말로 유명해졌습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 몸에 가해지는 외부적인 압력이나 자극은 다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유쾌하고 어떤 것은 불쾌한 자극입니다. 원래 자연 상태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단기적 반응 태세를 유발합니다. 예를 들어 맹수를 만났을 때 싸울까 도망갈까를 결정하고 행동을 취하는 식의 것은 빨리 해결됩니다. 그런데 현대인이 겪는 공해, 교통, 직업, 경제적 스트레스는 행동을 재빨리 위하거나 도망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달씩, 몇 년씩 지속되기 때문에 몸에 심한 부담과 무리를 주어 병이 생기는 것이지요.

셀예 박사에게 20 여 년에 걸친 방대한 연구를 좀 쉽게 요약해달라고 했더니 그는 500 쪽이 넘는 두툼한 책을 썼습니다. 출판사에서 너무 길고 어려우니 더 줄여달라 했답니다. 셀예 박사는 줄이고 줄여 30 쪽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해주었습니다. 그래도 일반인이 읽기에는 너무 어려워 더 줄여달라고 했더니 다음과 같이 말하더랍니다.

"개를 적으로 보느냐 친구로 보느냐에 따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 몸에 생화학적 성분이 달라진다." (아마 셀예 박사가 한국인이었다면

이렇게 말하였을 것입니다. "개를 호신용으로 보느냐 보신용으로 보느냐에 따라.....")

요컨대 스트레스는 마음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어쩔 수 없다", "비극이다", "내 힘으론 바꿀 수 없다"고 체념할 때 스트레스도 훨씬 더 받고 위궤양, 암 따위의 병에 잘 걸립니다. 반대로 "한번 해보자", "이것도 인생 공부다", "앞으론 좋아질 것이다", "잘될 것이다", "끝까지 도전해 보겠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서 선택의 여지가 많고 그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을 바꾸든, 목표를 낮추든, 좀더 분발하고 노력하든, 서로 용기를 북돋워주고 격려해주든, 아니면 하루에 오 분씩 명상을 하든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잔소리 코너>>

미국에서도 불과 1980년대까지만 해도 "시간이 금이다"는 산업자본주의 사고방식에 거의 모두가 중독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더 많이, 더 잘해야 성공이라고 밀어 부치고, 가정에서도 더 많이 돈 벌고, 더 큰집에서, 더 좋은 차를 타는 것이 행복인 줄 착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두 세대를 살아본 결과 남는 것은 정신력의 고갈, 누적된 스트레스, 각종 만성병, 인간 관계의 파괴, 허무감과 피로와 고독이라는 것을 깨닫고 새 사고방식(패러다임), 새로운 생활 철학을 찾게 된 것입니다.

5.1 시간/여유

새시대 교수법을 보면 유능한 교육자의 핵심 특성 8 가지 중 하나가 "학생들에게 시간을 할애한다"라고 합니다. (새시대 교수법 30 호)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학생들을 위한 시간은커녕 자신을 위한 시간마저 없습니다. 그러니 유능한 교육자가 되긴 이미 틀린 것일까요?

여기에 갈등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시간이 없다.", "바쁘다, 바빠."라는 말을 입에 달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해야 하는 데, 시간의 여유가 통 없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강의, 연구, 잡무, 회의등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질질 끌려 다니다가 저녁 시간 마저 그다지 보람없는 일에 잡혀 있다 보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시간이 고무줄 같이 밀도 끝도 없이 늘어나면 모를까.... 학생들에게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다른 활동을 줄여야 할까요?

꼭 그 방법만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시간

관리의 첫 단계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냥 쪽 읽어내려 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 하나 따라 하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아래 각 항목에 몇 시간을 쓰시는지 지금 적어 보십시오. 시간은 일주일 단위입니다. 수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평일 날에 하루 평균 7 시간 자고, 주말에는 9 시간 잔다면 수면 항목 옆에 51 시간을 기입하십시오. (6일 x 7시간 + 1일 x 9시간 = 주 51시간)

활동 종류	시간	
잠		
음식		
위생 관리		
통근		
일 강의		
연구		
봉사		
사적 잡일		
쉽		
운동		
가족		
사교		

총합이 168 시간과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일주일에 168 시간이 있습니다!) 한 10 시간 정도 차이는 크거나 적거나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시간 차이가 크면 클수록 교수님의 시간 관리가 허술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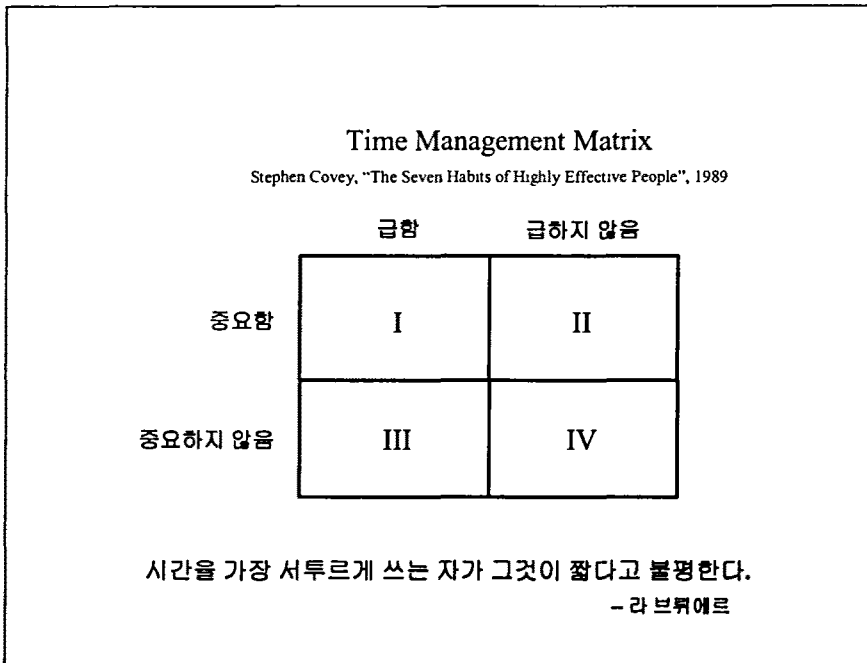
만약 합이 168 시간보다 10 시간 이상 크다면 교수님께서서는 생활의 우선 순위(priority)를 다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만약 합이 168 시간보다 10 시간 이상 적다면 교수님께서서는 기타 또는 "개인 시간"을 제대로 계산하셨는지 체크해 보십시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개인 시간을 적게 책정합니다.

두 경우 다 시간을 잘 못 쓰시는 것입니다. 합이 168 시간이 되도록 각 항목에 할애된 시간을 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합이 168 시간보다 20 시간 이상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만약 각 항목별로 시간을 계산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면 교수님의 생활에 리듬이 없는 경우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역시 좋은 경우가 아닙니다.

5.2 중요한 것과 급한 것



스티븐 코비가 가르치는 내용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소중한 것과 급한 것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소중한 것 대신 급한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계신지 살펴보십시오.

건강 관리를 해야 할 텐데, 시간이 없어서~

자기 개발을 하고 싶는데 시간이 없어서~

가족과 좀더 가까이 지내고 싶는데 시간이 없어서~

믿음직스럽고 따스한 인간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할 텐데~

마음의 여유를 찾아야 할 텐데 도무지 시간이 없어서~

유능한 교육자가 되고 싶는데, 학생들에게 할애할 시간이 없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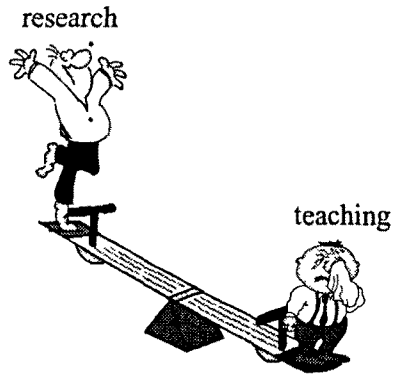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바쁠수록 사실 이런 소중한 것과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허전함을 메우려고 더 바쁜 체바퀴를 계속 굴리면서 삽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할까요?

"교육자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이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선 질과 양을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5.3 양과 질

PROBLEM: Devaluation of teaching activities (win-lose)

중국어의 '양과 질'은 '양'과 '질'을 가리키는 한자어 쌍이다. '양'은 '수량' 또는 '양적'을 의미하며, '질'은 '품질' 또는 '질적'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교육 분야에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사이의 긴장 관계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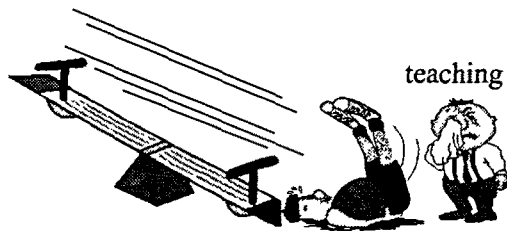


Publish OR perish!

CONSEQUENCE: Self-destruction (lose-lose)

중국어의 '양과 질'은 '양'과 '질'을 가리키는 한자어 쌍이다. '양'은 '수량' 또는 '양적'을 의미하며, '질'은 '품질' 또는 '질적'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교육 분야에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사이의 긴장 관계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research 20,000 publication per DAY
Loss of meaning
Loss of purpose
Loss of voice



Publish AND perish!

세 종류의 교육자가 있습니다. 첫째, 교직을 직업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은 고된 것이므로 최소한으로 하고, 즐거움을 주는 놀이는 일을 한 후에 (일을 한 대가로) 누리는 것으로 여깁니다. 일(고됨)과 놀이(즐거움)를 완전히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소중한 것은 즐거움을 얻게 해주는 돈입니다. 일은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둘째, 교직을 전문직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책임감이 강하고 시간을 투자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이들은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성공(승진)하고자 열심히 일합니다. 이들은 일을 할 적에 인센티브(투자의 가치, 외적 동기)를 먼저 따집니다. 이들에게 소중한 것은 자신의 성취입니다. 학생은 그저 자신이 맡은 책임일 뿐입니다.

셋째, 교직이 타고 난 팔자라고 받아들이는 교육자들은 일이 언제 시작하고 끝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구태여 구분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그리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일 자체에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즉, 내적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들에게 소중한 것은 학생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있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떤 교직원관을 가진 교육자가 오래 행복하게 살까요? 이미 다 눈치를 챘겠지만, 교직을 팔자소관으로 보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Seligman, Authentic Happiness, Free Press, 2002)

결론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 유능한 교육자는 학생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2. 행복한 사람은 급한 것 보다 소중한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3. 유능하고 행복한 교육자가 되는 길은 학생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잔소리 코너>>

어떤 교육학자는 교직관이 긴 역사적 차원에서 따져볼 때 성직에서 전문직을 거쳐 노동직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교사 노조와 교수 노조가 등장하는 현실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런 마당에 교직을 팔자소관으로, 성직처럼 여겨라고 하니 현실을 무시한 메시지로 들릴 수가 있겠군요. 아닙니다. 현실은 주어진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 주어진 상황에 각자 다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능하고 행복한 교육자가 될 것인가는 안될 것인가는 지극히 개인적 선택입니다.